

물 · 전기 ·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볼리비아 수도 요금 사기업화이후 30배 인상
한국 상수도가 사기업화 된다면...



상·하수도요금 채납확장권 영수증 (수용가보관용)					
2006.12.31					
25310 원					
2006.10	11520	6040	2160	680	25310
2005.12.16					



상·하수도요금 채납확장권 영수증 (수용가보관용)					
2010.12.31					
779700 원					
2010.10	345600	181200	64800	20400	759300
2005.12.16					

상·하수도요금 채납확장권 영수증 (수용가보관용)					
2010.12.31					
779700 원					
2010.10	345600	181200	64800	20400	759300
2005.12.16					

상·하수도요금 채납확장권 영수증 (수용가보관용)					
2010.12.31					
779700 원					
2010.10	345600	181200	64800	20400	759300
2005.12.16					

한미 FTA는 이윤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그 결과는
공공요금(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등) 폭등, 대규모 해고, 공공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을 시장에 내맡기지 말라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어윤대 고려대 총장

“등록금
1500만원은
돼야 한다”

교육 개방은 등록금 대폭 인상과 기여입학제 도입등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을 부추길 것이다. 양질의 교육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도입하려는
미국식 의료체계



맹장수술
현재 30만원



1천만 원



아이 낳는 데
현재 40만원



7백만 원



사랑니 뽑는데
현재 2만원



1백만 원

노무현 정부는 송도, 광양, 부산 등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에서 의료시장을 개방해 왔다. 의료 개방은 건강보험 제도를 약
화시키고 건강보험료와 진료비의 폭등을 낳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한미FTA



NAFTA 이후의 멕시코

경제활동인구 4600만 명 중
3300만 명(71%)이



NAFTA 이후

**31%
임금 감소**



NAFTA이후 멕시코에서는 비정규직이 대폭 늘고 임금은 줄어 들었다. 한미FTA는 벌써 850만 명인 비정규직 숫자를 더 늘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 해고 요건이 완화돼 실업률도 늘 것이다.

투기자본의 천국을 위한 한미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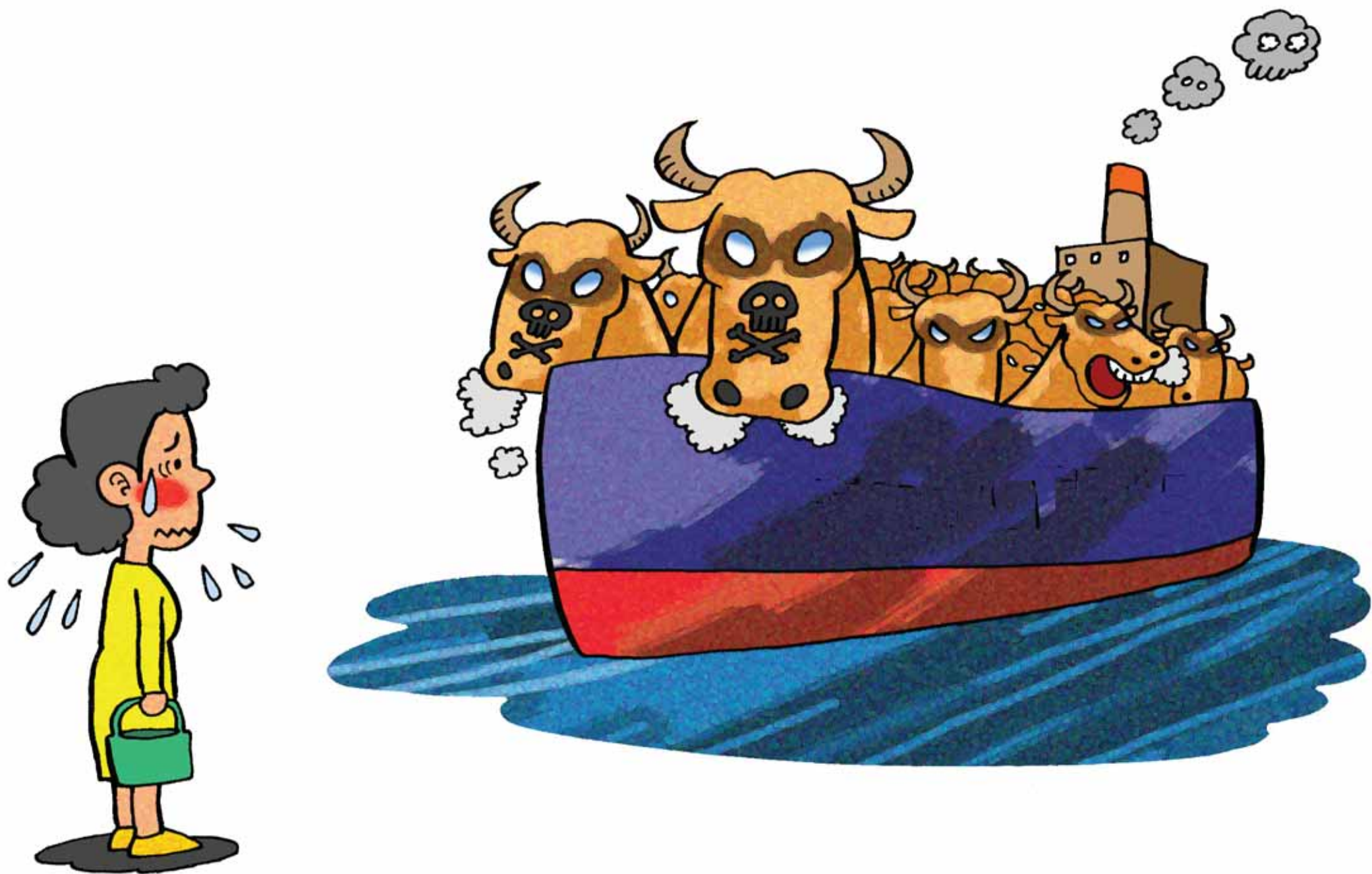


론스타는 2년 6개월 만에 4조 5천억 원을 벌어들여 한국을 튀려 한다. 한미FTA는 이런 '먹튀 자본'의 천국을 만드려는 것이다. 이 돈이면 6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한미FTA



광우병 소가 우리 식탁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광우병 의심 쇠고기나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규제나 단속 없이 국내에 들어올 것이다.